

<http://doi.org/10.52530/kpac.2026.58.2>

頤齋 曹友仁의 삶과 현실 인식*

황동권**

차례

1. 머리말
2. 조우인의 생애와 교유
3. 국방 대책 제시 및 대북 정권에 대한 풍자
4. 맺음말

| 국문초록 |

頤齋 曹友仁은 경상도 예천군 개포리 출신으로, 월천 조목의 문인이다. 그의 증조부 조계 형은 연산군 때 문명을 떨친 문인으로, 시문학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악물에 밝아 언해와 악장에도 뛰어났다. 이러한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와 문예적 소양은 후대에 문예지향적인 가풍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가풍 위에서 조우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시재를 보였으며, 일찍부터 한글 가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편의 가사 작품을 남긴 가사문학의 대가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시로써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시 때문에 재앙을 당한 불우한 시인이기도 했다. 1605년 문과에 급제한 조우인은 광해군 시기 대북 정권을 비판하는 시문을 지으며 계속옥사와 영창대군 사건을 풍자하는 등 강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1621년 경운궁에서 지은 두 편의 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어 이이첨 일파의 무고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친국과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권필과 함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詩禍를 겪은 시인으로, 권력 비판과 절의를 지킨 문인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인조반정

* 이 논문은 2016년 10월 7일 대동한문학회 주최로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HK연구교수

으로 석방된 뒤 다시 등용되었으나 고문으로 얻은 병이 악화되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상주 매호로 낙향하였다. 조우인은 영남 남인으로 상주의 정경세·이준·이전 등과 폭넓게 교유했을 뿐 아니라, 서인과 여항문인까지 아우르며 당파와 신분을 초월한 교유를 이어갔다. 특히 이식과는 23세의 나이 차이와 당색의 한계를 넘어 깊은 학문적·문학적 우정을 나누었다. 또한 여항시인 유희경이 이끈 침류대시사에 참여하여 침류대를 이상향으로 노래하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조우인의 교유는 나이·지역·당파·신분을 초월해 문학과 인품을 중시한 점이 특징이다. 조우인은 현실 문제에 적극 참여한 문인이었다. 광해군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왜적과 후금 사이의 ‘腹背受敵’의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인 조령에 關防을 설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국방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화 작품인 <대개천설>을 지어 더러운 개천에서 목욕하며 물을 마시는 ‘객’의 모습을 통해 광해군 정권과 대북 세력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이처럼 조우인은 상소와 시, 우화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정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현실 참여형 문인이었으며, 그의 문학은 강한 사회의식과 풍자정신을 담고 있다.

주제어 : 曹友仁, 가사문학, 詩稿, 침류대시사, 腹背受敵, 대개천설, 국방 대책, 풍자정신

1. 머리말

頤齋 曹友仁(1561~1625)은 詩·書·畵 삼절로 일컬어졌다. 그의 문장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펼쳤으나 그대로 법도에 딱 맞았고, 필법은 眞書와 草書 및 각종 서체를 두루 구비하여 이를 얻는 자들은 보배로 여겼으며, 회화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다.¹⁾ 뿐만 아니라, 악률과 잡기에도 뛰어났다. 특히, 일찍부터 한글 가사에 관심을 가지고 <梅湖別曲>·<自悼詞>, <關東續別曲>, <出塞曲> 4편의 가사 작품을 남긴 가사문학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문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조우인의 가사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현재까

1) 李植,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집, 373면, “其爲文章 矢口抒思 而自中模楷 筆法 眞草衆體咸備 得者寶之 旁及繪事 足稱三絕”

지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편이다.²⁾

이에 반해, 한문학계에서는 연구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우선 조우인에 대한 소개는 李家源의 『李朝名人列傳』 8, 575쪽에 소개되어 있고, 권태율의 『尙州 漢文學』, 188쪽에도 소개되어 있으며,³⁾ 한국국학진흥원의 『문집해제』⁴⁾ 12, 281쪽에 조우인에 대한 간략한 생애와 『頤齋集』에 대한 간략해제가 소개되어 있다. 또한 창녕조씨 이재공파종회에서 1990년에 간행한 『(국역)頤齋先生文集』은 시를 제외한 문이 번역되어 있다. 논문으로는 조창록의 「頤齋 曹友仁의 詞에 대하여」,⁵⁾ 윤호진의 「澤堂의 頤齋詩 비평에 대하여」,⁶⁾ 이구의의 「頤齋 曹友仁의 시에 나타난 외물과 그 의미」⁷⁾라는 3편의 논문이 나와 있다. 조창록은 조우인의 「詞」⁸⁾에 대해서 다루었고, 윤호진은 이식이 이재시에 행한 비평을 통하여 이식의 비평 양상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이재의 시를 언급했으며, 이구의는 <卽事> 8수에 나타난 외물과 그에 함축한 시인의 정신을 고찰하였다. 이

2) 관련 논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식, 「매호별곡과 자도사」, 『자유문학』 49, 자유문학사, 1961; 김영만, 「曹友仁의 歌辭集 『頤齋永言』」, 『어문학』 10, 한국어문학회, 1963; 고정식, 「曹頤齋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63, 고정식, 「鄭松江과 曹頤齋의 관계」,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197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김대권,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김기탁, 「매호별곡의 자연배경고」, 『한민족어문학』 22, 한민족어문학회, 1992; 정인숙, 「조선후기 연구가사의 전개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박역만, 「이재 조우인 가사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문학석사, 1999; 장수현, 「사미인곡계 가사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김기탁, 「매호별곡의 서경성」, 「매호별곡의 자연」, 『한국시가문학론」, 아세아문화사, 2002; 성재은, 「이재 조우인의 「속관동별곡」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강경호,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 연구-〈出塞曲〉과 〈續關東別曲〉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2006; 최현제, 「戀君歌辭 <自悼詞>의 특징과 의의」, 『동양고전연구』 41, 동양고전학회, 2010; 이재준, 「頤齋 曹友仁의 가사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학회, 2012.

3) 권태율, 『尙州 漢文學』, 문창사, 2001.

4) 권진호 외 12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문집해제』 12, 한국국학진흥원, 2009.

5) 조창록, 「頤齋 曹友仁의 詞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26, 동방한문학회, 2004.

6) 윤호진, 「澤堂의 頤齋詩 비평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7) 이구의,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 <즉사(卽事)>시(詩)에 나타난 외물(外物)과 그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4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8) 『頤齋集』에 39調 42首 분량의 詞가 실려 있다.

밖에 임형택의 「18, 19세기 예술사의 성격」이라는 논고에 조우인의 시 3수가 인용되었다.⁹⁾ 이상 정리하면, 조우인에 대한 한문학계 연구는 조우인의 간략한 인물 소개와 그의 작품인 「詞」와 일부의 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그의 문학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편이다.

한편, 『頤齋集』은 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 속12에 들어있다. 구성을 보면, 권1에는 시 239題 354首와 歌詞 42闕이 실려 있고, 권2에는 疏 2, 碣銘 1, 書 2, 記 5, 說 1, 序 3, 志 1, 雜著 4, 引 2, 祭文 1, 賦 5 등이 실려 있다. 그러나 문집총간본은 조우인의 작품이 온전하게 실려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집이다. 그가 지은 <蠡測錄>, <大開川說>, <遊枕流亭序>, 藥圃 鄭琢을 애도한 輓詞와 제문, 月川 趙穆을 애도한 제문과 만사, 泰村 高尚顔을 애도한 제문, 雲川 金涌을 애도한 만사 등이 누락되어 있다. 무엇보다 조우인의 생애를 알 수 있는 부록과 문집의 서발이 없어서 그의 생애와 『이재집』 간행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澤堂 李植이 찬한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이 『澤堂集』에 실려 있어서 조우인의 생애를 대략이나마 알 수 있다.

이식은 조우인에 대해 ‘오직 시에 대해서는 조금 진일하게 공력을 들여 淸俊하고 典雅한 것이 이따금 唐詩에 가까웠다. 비록 시로써 명성을 얻었지만, 또한 시 때문에 재앙을 당하였다.’¹⁰⁾고 평가하였다. 조우인은 다재다능한 문학적 재능을 지녔지만, 무엇보다 시에 특징이 있는 뛰어난 시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우인의 시문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우선 조우인의 가계와 삶, 그리고 교유 관계 및 현실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우인은 성품이 강직하여 세상일에 대해 논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시에 뛰어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번번이 이를 시로 읊조리곤 하였다. 이러한 그의 성격이 경운궁에 숙직할 때 지은 두 편의 시로 인해 광해군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고 하옥되는 詩禍의 단초가 된 것이다. 따라서 조우인의 삶과 현실 인식에 대

9) 임형택, 「18~19세기 예술사의 성격」,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10) 李植,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위의 책, 373면, “惟於詩 用工稍專 淸俊典雅 往往遍唐 雖以此得名 亦以此古禍”

해 살펴보는 것은 그의 시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2. 조우인의 생애와 교유

1) 퇴계학파로의 편입과 문예지향의 가풍

신라 26대 임금 眞平王의 사위가 된 曹繼龍을 비조로 하는 창녕조씨는 고려조에 이르러 曹謙이 太祖 王建의 딸인 德興公主에게 장가를 들어 관직이 平章事に 이르렀다.¹¹⁾ 이후 8대에 걸쳐 존귀한 대신들이 성대하게 배출되면서 명문거족으로 성장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 증조부인 退憂堂 曹繼衡(1470~1518)은 우부승지를 지냈고, 조부인 曹彦弘은 호조 참의를 증직받았으며, 부친 曹夢臣은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조계형은 경북 상주 沙伐面 梅湖里 출신으로, 자는 平甫, 호는 退憂堂이다. 그의 손자대에 오면 가계가 북인(남명학파)과 남인(퇴계학파)으로 분화하는 현상을 보인다. 조언홍의 차남 曹夢吉(조우인의 백부)은 함천으로 이주하여 南冥 曹植, 黃江 李希顔과 함께 ‘嶺中三高’로 불린 松溪 申季誠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아들 曹應仁(조우인의 종형) 역시 황강 이희안의 외손녀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남명학파의 중심 가문으로 자리 잡는다.¹²⁾ 이에 반해 조우인의 부친 蘆溪 曹夢臣은 경북 예천 蘆浦(현 예천군 개포면)에 자리를 잡고, 平山申氏 사이에서 조우인을, 公州李氏 景祐의 딸 사이에서 默巖 曹希仁을 낳았다.¹³⁾ 조우인은 永川李氏 李仲樑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나 자식을 두지 못하여, 다시 眞城李氏 李閔道の 딸에게 장가를 들어 장남 湖翁 曹挺融(1598~1678)을 낳았다.¹⁴⁾ 賀淵

11) 曹好益, <行狀>, 『芝山集』, 한국문집총간 55, 567면, “諱謙 尙王女德興公主 官至平章事”

12) 박병린, 「‘광해군 복립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해학파」, 『남명학』 11집, 남명학연구원, 2002, 247~248면 참조.

13) 조병일, <贈吏曹判書 昌寧曹公(夢臣) 墓碣銘>, 『예천의 금석문』 1, 예천문화원, 2002.

14) 李植,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위의 책, 373면, “公先娶永川李氏 監司仲樑孫女 無子 後娶眞城李氏 佐郎閔道女 生一男三女 男挺融”

李仲樑(1504~1582)은 龔巖 李賢輔의 넷째 아들이고, 遇巖 李闕道는 退溪 李滉의 둘째 형 李河(퇴계의 부친 李堉과 義城金氏 사이에 태어난 둘째)의 손자이다. 장남 조정용의 배위는 平海黃氏로 東溟 黃中允의 딸이고, 後配는 豐壤趙氏로 黔澗 趙靖의 손녀이다. 황중윤은 鶴峯 金誠一(1538~1593)의 제자인 海月 黃汝一(1556~1622)의 맏아들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합천으로 이주하여 남명학파의 중심 가문으로 성장한 백부계와 달리 조몽신·조우인·조정용 3대는 예천·상주를 중심으로 세거하면서 이현보·이황·황중윤·조정 등 영남 남인들과 혼반을 맺음으로써 퇴계학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우인 가문에서 많은 급제자와 문예적 취향이 강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데 있어, 증조부 조계형의 높은 시문학적 성취가 일정한 역할을 한 듯하다. 조계형이 진사시에 응시했을 때 1백 명의 시권을 연산군에게 入啓했는데, 연산군이 3위에 있던 그의 작품을 뽑아 1위에 두었다.¹⁵⁾ 이후 연산군은 조계형의 문학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다양한 시문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 1505년(연산군 11) 3월 2일, 姜渾(1464~1519)이 逆祥服·趁瑞服의 그림을 입게하자, 연산군은 任士洪·金勘·朴說·조계형에게 기문을 짓고 간행하게 하였다.¹⁶⁾ 동년 5월 29일, ‘帶雨榴花, 譏伯姬妄節, 王莽女漢 黃后投火’를 제목으로 삼아 조계형·李希輔에게 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¹⁷⁾ 6월 21일에는 대비의 탄신일에 축수하는 箋文을 조계형에게 지어 바치게 하였다.¹⁸⁾ 또한 7월 7일, 成希顔·조계형을 불러 ‘홍문관을 혁파하다[革罷弘文館]’를 제목으로 삼아 글을 지어 바치게 했으며,¹⁹⁾ 9월 7일에는 대비전에 進宴할 때 축수하는 시를 강흔·조계형에게 지어 바치게 하였다.²⁰⁾ 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언문으로 曆書를 번역하게 하거나,²¹⁾

15) 『燕山君日記』 권9, 1년 10월 24일 기사, “取生員李長坤進士曹繼衡等各一百人試券入啓 繼衡之作在第三 王擢置第一.”

16) 『燕山君日記』 권57, 11년 3월 2일 기사, “左承旨姜渾啓逆祥服趁瑞服圖, 傳曰, ‘首花及廣熙樂總律冠服皆圖上, 然後書題目.’ 仍命任士洪金勘朴說曹繼衡作記, 且令開刊.”

17) 『燕山君日記』 권58, 11년 5월 29일 기사, “命以帶雨榴花, ‘譏伯姬妄節’, ‘王莽女漢 皇后投火’爲題, 其令能文如曹繼衡李希輔者 製詩以進.”

18) 『燕山君日記』 권58, 11년 6월 21일 기사, “大妃誕日祝壽箋文, 令兵曹正郎曹繼衡製進.”

19) 『燕山君日記』 권58, 11년 7월 7일 기사, “命召成希顔曹繼衡 以革罷弘文館爲題 製文以進.”

鳳凰吟體를 본떠 악장을 짓고 여기에 口訣을 달게 하였다.²²⁾ 또 <滌恨歌>의 가사를 <天衢白日明歌>의 악장의 예에 따라 상하가 서로 화답하는 뜻으로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²³⁾ 조계형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그의 시문학적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연산군일기』에 보이는 기사를 통해 볼 때 그는 시문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말과 악률에도 조예가 깊어 언해와 악장에서도 높은 성취를 보인 듯하다.

아들 조정응은 자가 維瞻, 호는 湖翁으로, 1631년(인조 9)에 별시에 급제한 뒤 사예·고원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²⁴⁾ 조정응 역시 약 594제 646수 정도의 시를 남긴 뛰어난 시인으로, 문사는 풍부하고 넉넉하며 시격은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다.²⁵⁾ 조정응의 문집인 『湖翁遺稿』에는 산문보다 운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의 시적 역량을 입증하듯 절구와 율시·회고시·영사시·악부시·연작시·육언시 등 다양한 시체가 실려 있다.²⁶⁾

이 밖에 조우인의 재종형인 恥齋 曹倬은 경성 판관으로 좌천되어 가는 재중재 조우인에게 “岐峯 白光弘은 관서에서 울고, 松江 鄭澈은 관동에서 울었으나, 北路에 이르러서는 들은 것이 없다. 고금의 문인·재사들 중에 삭방에 왕래한 자들이 어찌 한두 번 헤아려서 그러할 수 있겠는가마는 이는 풍류 마당의 흠이 아니겠는가. 자네는 나를 위해 뜻을 다해 구상하여 長歌 한 편을 지어 와서 늙은 형의 외롭고 적적한 회포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²⁷⁾라고 하였다.

20) 『燕山君日記』 권59, 11년 9월 7일 기사, “來初九日 大妃殿進宴時 祝壽詩 絕句十首 其令右承旨姜渾戶曹參議曹繼衡製進”

21) 『燕山君日記』 권56, 10년 12월 10일 기사, “命兵曹正郎曹繼衡 以諺文翻譯曆書.”

22) 『燕山君日記』 권56, 10년 12월 10일 기사, “知製敎曹繼衡 效鳳凰吟體 製樂章以進 還下承政院曰 令繼衡書口訣以入 又令大提學金勘戶曹參判朴說製進”

23) 『燕山君日記』 권57, 11년 4월 4일 기사, “滌恨歌詞 依天衢白日明歌章例 令金勘朴說曹繼衡, 以上下相和之意製進”

24) 김용주, 「호옹유고 해제」, 『湖翁遺稿』, 한국국학진흥원, 2010, 4~5면.

25) 曹挺融, <墓碣銘>, 『湖翁遺稿』, 한국국학진흥원, 2010, 557~558면, “文詞富贍 詩格雅健”

26) 『湖翁遺稿』는 미간행필사본으로, 2010년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 영인총서 9’로 발간한바 있다.

27) 曹友仁, <題出塞曲後>, 『頤齋集』, 한국문집총간 속12집, 303~304면, “白詞則鳴於關西 鄭詞則播於關東 而至於北路 則繁無聞焉 古今文人才子之往來朔方者 豈可以一二數而猶然者

이로 미루어 볼 때, 조탁 역시 평소 적적할 때 가사 작품을 감상하거나 향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증조부 조계형은 시문학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악률에 밝아 언해와 악장에도 뛰어났다. 따라서 그의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와 문예적 소양이 자연스럽게 조우인·조정응·조탁 등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대북 정권과의 갈등과 詩禍 그리고 영화

조우인의 생애를 정리한 가장·행장 등이 남아 있지 않아 그의 생애를 온전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澤堂 李植이 찬한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과 李肯翊이 찬술한 『燃藜室記述』 및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를 통해 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曹友仁(1561~1625)은 자는 汝益, 호는 頤齋·梅湖·峴南·聽鱸, 본관은 昌寧이다. 그는 1561년(명종 16)에 경북 예천군 蘆浦里 집에서 아버지 曹夢臣과 어머니 申澍의 딸 平山 申氏 사이에서 태어났고,²⁸⁾ 月川 趙穆(1524~1606)의 문인²⁹⁾이다.

조우인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겨우 말을 배울 무렵 문자를 깨우쳤고, 4세 때 대를 맞추어 시를 지었는데 “구름은 푸른 산 머리를 가두고, 안개는 저물녘 강허리를 가르네[雲囚碧山首煙割暮江腰]”라고 읊어 뛰어난 시재를 드러내었다. 장성해서는 특정 분야를 두지 않고 널리 공부했고, 과거 공부 이외에도 古文詞를 사모하여 양쪽 모두를 향상시켜 명성이 자자하였다. 1588년(선조 21, 28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약 십여 년간은 행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는 임진왜란의 영향인 듯하다. 1600년

茲非風流場之一次事歟 子其爲我極意構思 製爲一長歌而來 以慰老兄孤寂之懷可也”

28) 이식,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위의 책, 372면, “按公諱友仁, 字汝益, 曹氏本昌寧著姓……考諱夢臣 贈吏曹判書 妣平山申氏 公以嘉靖辛酉某月日 生于體泉郡蘆浦里”

29) 『月川集』에 실린 제문과 만사 두 편에 자신을 ‘門人’이라 칭했고, 또 『월천선생문인록』에 월천의 고제 操省堂 金澤龍 다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선조 33, 40세) 2월 제용감 참봉으로 있을 때 사적인 일로 復命을 지체했는데, 이 때문에 파직되었다.³⁰⁾ 이식의 <묘지명>에 ‘제용감 참봉에 보임됐다가 얼마 뒤에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³¹⁾는 기록으로 보아, 그는 1599년(선조 32, 39세) 즈음에 제용감 참봉에 제수됐다가 이때 파직된 것으로 보인다. 1600년 겨울에 應旨하여 장문의 <求言疏>를 올렸다. 1605년(선조 38, 45세) 정시에 급제한 뒤에 성균관 전적·사헌부 감찰·형조 정랑·은계 참방 등을 역임하였다.

1616년(광해군 8, 56세)에 경성 판관으로 좌천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금기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라고³²⁾ 한다. 당시의 금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당시 來庵 鄭仁弘의 권세가 조야를 압도하자 조우인은 매번 ‘大姦’이라며 그를 배척하고, 일찍이 <大開川說>을 지어 그 무리를 비난하고 힐책하였다.³³⁾ 경성 판관 재임 시절, 癸丑獄事 때 광해 정권이 이복동생인 永昌大君을 살해한 것을 풍자한 <兄弟巖>이라는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광해군 집권 초기 대북 정권의 실정, 특히 계축옥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그들의 심기를 더욱 건드려 이후 더 큰 화를 입는 계기가 된 듯하다.

바위에 형제라고 이름 붙이니
영원히 마멸되지 않으리라
어찌해야 여와의 손을 얻어
너를 단련해 하늘 구멍 메울까

石以兄弟名
終古不磨滅
安得女媧手
鍊汝補天缺³⁴⁾

이 시는 창작 연대가 정확하지 않다. 다만 <형제암>이 함경도 부령도호부 남쪽에 있어,³⁵⁾ 조우인의 임지인 경성과는 가까운 거리이므로 경성 판관으로

30) 『宣祖實錄』 권122, 33년 2월 24일 기사, “濟用參奉曹友仁 歲前奉使南下 公幹之外 任意遲留 今始復命 縱吝蔑法極矣 請命罷職”

31) 이식,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위의 책, 372면, “薦補濟用監參奉, 未久罷歸”

32) 이식,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위의 책, 372면, “丙辰冬 復出判官鏡城 中時忌也”

33) 이식,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위의 책, 372면, “鄭仁弘勢傾朝野 而公每斥之以大姦 嘗作大開川說 以譏貶其黨”

34) 조우인, <兄弟巖>, 위의 책, 246면.

재직할 때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1617년(광해군 9, 57세)에 모종의 일로 파면되어 돌아왔다.³⁶⁾ 하지만 경성을 개축한 공로로 일찍이 통정대부에 올랐다.

한편, 자신이 지은 시로 인해 화를 입는 것을 ‘詩禍’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시화를 입은 시인이 종종 있었다.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石洲權鐔(1569~1612)을 꼽을 수 있다. 권필은 1611년(광해군 3)에 任叔英이 削科됐다는 소식을 듣고 <聞任茂叔削科>라는 시를 지었는데, 일명 <宮柳詩>로 광해군의 妃인 柳氏의 아우 柳希奮 등 외척의 방종을 비난한 시이다. 결국 1612년(광해군 4) 4월에 이 시가 발각되었다. 권필은 끌려가서 광해군의 혹독한 국문을 받은 뒤에 들것에 실려 慶源 유배 길에 올랐다가 동대문 밖 민가에서 벗들이 권하는 막걸리를 마시고 杖毒이 솟구쳐 세상을 떠났다.³⁷⁾ 훗날 조우인은 권필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애도하였다.

<전략>

나는 이미 그의 시를 사랑했고	我既愛其詩
또다시 그의 죽음을 슬퍼하네	又復哀其死
슬퍼하면서 경계를 알지 못해	哀而不知戒
앉아서 뜻밖의 재앙 초래했네	坐召奇禍至
다만 생사가 다름을 한하니	只恨生生殊
도리어 여장에게 부끄럽네	翻爲汝章恥
여장을 내 진실로 슬퍼하거니와	汝章我固哀
나를 슬퍼할 이 응당 다시 누구라	哀我當復誰
구원에서 만일 할 수 있다면	九原尙可作
웃으며 속마음 이야기하리라	一笑話心期 ³⁸⁾

35) 『新增東國輿地勝覽』 <咸鏡道, 富寧都護府>조에 “형제암은 함경도 부령도호부 남쪽 19리 지점에 있다. 두 개의 바위가 마주한 채 솟아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기 때문에 ‘형제암’이라 부른 것이다.[兄弟巖, 在府南十九里 兩巖對峙 一大一小 故名]”라고 하였다.

36) 이식, <記文跋>, 위의 책, 475면, “旬日余先歸 明年 曹亦罷歸梅湖”

37) 정민, 「석주 권필 연보」,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233~294 참조

38) 조우인, <悼權汝章>, 위의 책, 273면, “……我既愛其詩 又復哀其死 哀而不知戒 坐召奇禍

이 시는 <궁류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석주 권필을 애도하면서 자신 역시 권필처럼 시화를 당한 동병상련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시의 창작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경계할 줄을 몰라 뜻밖의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시구와 죽은 권필에게 자신을 슬퍼해달라는 시구를 봤을 때 조우인이 分政院에서 숙직하면서 지은 두 편의 시로 인해 친국을 받고 옥에 갇힌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1621년(광해군 13, 61세) 조우인은 제술관에 임명되어 서울에 머물다가, 7월에 잠시 경운궁에 입직하면서 <直分司記所見>³⁹⁾과 <題分司承旨廳壁>⁴⁰⁾ 두 편의 시를 지었다. 이때 李爾瞻의 일파인 白大珩과 辛義立이 이 시를 가지고 무고하여 결국 8월 11일에 체포되었다. 이듬해 1622년(광해군 14, 62세) 6월 22일 조우인은 대궐 뜰에서 친국을 받았다. 광해군이 진노하여 시의 진의를 묻자 조우인은 “신은 옛날 옥되게 행궁에서 일을 맡으면서 평소 선왕의 용안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지금 옛 궁궐의 유적을 보니 절로 슬픈 감정이 생겨 이런 시를 짓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⁴¹⁾ 그는 刑訊을 받을수록 말투는 더욱 엄숙한 채 ‘선왕을 생각한 것입니다[念先王]’라는 세

至 只恨死生殊 翻爲汝章耻汝章我固哀 哀我當復誰 九原倘可作 一笑話心期”

39) 조우인, <直分司記所見>, 위의 책, 279면에 “적막한 가로놓인 회랑에 새소리 애처롭고/ 맑게 갠 대낮의 빈 뜰은 잡초로 덮였네/ 임금과 가까운 이곳 유사가 출납했었는데/ 오랜 세월에 황량하여 먼지만 쌓였구나/ 제비는 옛 주인 찾아 밭 틈에 날아들고/ 나비는 시든 꽃 보고 섬돌 가를 나누나/ 동릉에 물이 말라 물시계 소리 끊기고/ 향로에 향불 사라지고 재만 남았구나/ 쓸쓸한 풍경은 경운궁 모습과 같은데/ 오르내리는 영령만 지하에서 우는구나/ 백발의 외로운 신하 남몰래 눈물 흘리며/ 돌 가득 자란 원추리 차마 못 보겠네[橫廊寂寞鳥聲哀 晴晝空庭掩草萊 清切地曾司出納 荒涼歲久聚塵埃 燕尋舊主投簾隙 蝶趁殘花戲砌隈 水涸銅龍宮漏絕 香銷金鴨篆灰堆 蕭條物色同南內 陟降英靈泣夜臺 白髮孤臣潛下淚 不堪萱草滿階棧]”라고 하였다.

40) 조우인, <題分司承旨廳壁>, 위의 책, “받들고 싶어도 받들만한 전지가 없으니/ 승지의 화려한 직함을 어디에서 부를까/ 앉아서 황혼 맞으니 밭 그림자 감감한데/ 박쥐가 나는 소리 잡아먹는 것만 보이네[欲承無旨可能承 承旨華銜底處微 坐到黃昏簾影黑 但看蝙蝠撲飛蠅]”라고 하였다.

41) 이석,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위의 책, 372면 “臣昔忝執事行殿 仰瞻先王玉色有素 今視舊宮遺跡 自生悲感 率爲此作 非有他意”

마디만을 계속 소리쳤다.

이후 같은 해 8월 29일에도 친국이 있었는데, 조우인은 시종일관 ‘선왕을 생각하며 시를 지은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형신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정강이뼈가 부서졌다.’⁴²⁾고 한다. 이때 형신을 받고 상처 난 부위를 아들 조정용에게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피력한 시가 있다.

<전략>

용안을 가까이 하자 맹렬한 우레 세차니	威顔咫尺迅雷烈
피는 대궐 뜰에 흘날리고 산악은 찢어지네	血濺彤庭山岳裂
몇 개월 만에 효자 조국량은 목숨을 잃고	纔過數月孝子殞
한 달도 채 안 되어 상주 고태허도 죽었네	未滿三旬棘人折 ⁴³⁾

<후략>

위의 시구는 <以受訊傷處示融兒>의 일부분이다. 가혹한 국문에 피는 대궐 뜰에 흘날리고 함께 국문을 받던 趙國良과 高太虛는 건디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죽었다고 읊었다. 조국량은 芝山 曹好益(1545~1609)의 문인으로 효행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국가에서 일찍이 그의 문에 旌表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죄가 없는데도 곤장을 맞고 죽었다.⁴⁴⁾ 고태허는 翠屏 高應陟(1531~1605)의 從孫으로, 아버지 상 중에 억울하게 죽었다.⁴⁵⁾ 국문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잘 보여준다.

한편, 조우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영남의 인사들이 몰래 돈을 모금하여 뇌물을 써서 한참 뒤에 保放되었다가⁴⁶⁾ 1623년(광해군 15, 63세) 인조반정을

42) 『光海君日記』 권61, 14년 6월 22일 기사, “王大怒 遂命嚴拷 脛骨碎裂”

43) 조우인, <以受訊傷處示融兒>, 위의 책, 277면 참조.

44) 조우인, <以受訊傷處示融兒>, 위의 책, 277면, “江東居士人趙國良 受學於曹芝山好益之門 孝行純至 國家嘗旌表其門 至是 以非罪死於杖下”

45) 조우인, <以受訊傷處示融兒>, 위의 책, 277면, “善山進士高太虛 乃翠屏應陟之從孫也 力持父喪 亦枉死”

46) 각주 11번 참고.

맞아 석방되었다. 석방된 뒤에 곧바로 첨지중추부사·동부승지·우부승지 등을 지내고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상주 梅湖로 돌아왔다. 그러나 늙은 몸으로 감옥에 갇혀 혹독한 국문을 당하는 바람에 깊은 병을 얻어, 결국 1625년(인조 3, 65세) 5월 3일에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3) 다양하고 폭넓은 교유

조우인의 생애는 그리 제대로 알려진 편이 아니라서, 교유한 인물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이재집』 및 여타 문집을 중심으로 시문을 주고받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조우인의 다양하고 폭넓은 교유 양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조우인은 상주 출신의 영남 남인이었기에 우선 영남 남인들과 폭넓은 교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愚伏 鄭經世(1563~1633), 蒼石 李堧(1560~1635), 月澗 李堧(1558~1648), 黔澗 趙靖(1555~1636), 瀼西 李光胤(1564~1637), 淸風子 鄭允穆(1571~1629) 등과 깊이 교유하였으며, 이외에도 石門 鄭榮邦(1577~1650), 梧峯 申之梯(1562~1624) 등과 교유하였다. 그러나 조우인은 영남 남인에 국한하지 않고 서인 및 여향문인들과도 깊은 친분을 맺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식, 유희경과의 교유가 매우 인상적이다.

조우인의 생애에서 가장 깊은 정신적 유대를 맺은 인물로는 澤堂 李植(1584~1647)을 꼽을 수 있다.⁴⁷⁾ 두 사람은 1604년(선조 37) 가을 안동 관아에서 처음 만났다.⁴⁸⁾ 당시 이식의 나이는 약관이었고 조우인은 44세였으니, 둘의 나이는 무려 23세에 달했다. 이때 조우인은 이식을 보고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여고(이식)는 당시 나이가 겨우 약관이었는데, 우뚝하게 성인의 의표를 지니고 있었다. 삼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바를 엿보니 남보다 매우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매우 공경하며 탄복하였다.⁴⁹⁾

47) 윤호진, 「澤堂의 頤齋詩 비평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참고.

48) 이식, <澤風堂記>, 『澤堂集』 별집 권11, 한국문집총간 88집, 474면, “昔在甲辰秋 遇李汝固 於永嘉之公廨”

49) 이식, <澤風堂記>, 위의 책, 474면, “嶷嶷有成人儀表 竊觀所存 有大過人之資 心甚敬服”

조우인은 이식과의 첫 만남에서 그가 약관의 나이임에도 성인의 풍모와 뛰어난 자질을 지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뒤 작별하고 나서 10여 년 동안 이식의 명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자, 조우인은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겼을 정도였다. 이처럼 조우인은 이식과의 강렬했던 첫 만남 이후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한동안 만나지 못하던 두 사람은 1616년(광해군 8)에 극적으로 재회한다. 조우인이 좌천되어 경성 판관으로 재직할 때, 이식 역시 과거에 급제한 뒤 北評事로 關北의 戎幕에 보임된 것이다. 이로써 두 사람은 12년 만에 각각 56세와 33세의 나이로 관북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아침·저녁으로 한 곳에 머물며 학문과 덕의를 나누었고, 서로의 발전된 모습에 크게 감탄하였다.⁵⁰⁾ 이때 이식은 조우인의 정사인 ‘梅湖精舍’를 훗날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조우인은 <澤風堂記>를 지어 주겠노라 화답했다.⁵¹⁾ 그러나 이 짧고 강렬했던 재회는 열흘 만에 끝이 났다. 이식이 다른 鎭으로 순행을 떠나고, 이듬해 조우인마저 과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으나 서로의 학덕에 매료된 두 사람의 우의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이후 1621년(광해군 13)에 조우인이 제술관으로 서울에 잠시 머물게 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때 조우인은 <택풍당기> 초본을 보여주었고 이식은 관북에서의 약속을 잊지 않은 것에 대해 사례하였다.⁵²⁾ 그러나 얼마 뒤 7월에 조우인이 잠시 경운궁에 입직하여 지은 두 편의 시로 인해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서 3년간 투옥되어 갇은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1625년(인조 3) 여름에 조우인은 <택풍당기> 사본을 이식에게 보내주고 곧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두 사람의 만남은 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전의 인연으로 조우인의 시 가운데 이식의 시운에 차운한 것이 많이 있고,⁵³⁾ 이식 역시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을 찬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이

50) 이식, <澤風堂記>, 위의 책, 474면, “余時以通判 朝暮與之處 薰炙德義 豈止刮目相對而已”

51) 이식, <寄題曹僉知汝益(友仁) 梅湖精舍後小亭次韻>, 위의 책, 30면, “余在北幕 與汝益同僚 約他日相訪於梅湖 公亦許作澤風堂記”

52) 이식, <記文跋>, 위의 책, 476면, “

53) 시로는 <過鐵嶺次汝固韻>, <沙峴次汝固韻>, <次汝固韻效義山題小妓飛瓊軸>, <楊州道中

재집』에 실려 있지 않고 『택당집』에 실려 있다. 이식은 조우인의 일부 시에 대해 비평을 했는데, 『이재집』에 부기되어 있어,⁵⁴⁾ 이식의 비평의식과 조우인의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이식은 매호정사에 제한 시와 그의 부음을 듣고 애도하며 지은 시가 있다.

아동 때 문장 음률로 교유를 허락하시니	童時文律許周旋
북해에서 중군하던 그해 제일 기억 남네	最憶從軍北海年
위청·곽거병 뉘 집에서 오골을 용납하리	衛霍何門容傲骨
끝없는 강호에서 시 창작에 골몰하였네	江湖滿地足吟肩
살아서는 사방 벽에 허백의 기운 감돌더니	人間四壁留虛白
죽어서는 천 마디 말 태현경에 부합하네	歿後千言付太玄
생추 한 다발 올리려니 교남이 아득하여	欲奠生芻雲嶠永
맑은 창에서 택당편에 눈물만 적시누나	晴窓淚染澤堂篇 ⁵⁵⁾

이 시의 1~4구는 조우인과의 인연과 시화로 국문을 당할 때 당당했던 그의 의기 및 매호정사에 은거하여 시를 읊조렸던 그의 삶을 노래하였고, 5~8구는 조우인의 시문은 후세에 길이 남을 명저가 될 것이라는 칭송과 부음을 듣고도 멀어서 가지 못한 슬픈 감정을 표현하였다. 조우인과 이식은 23세라는 나이 차이와 영남과 경기도 양평이라는 지역적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영남 남인과 서인이라는 당색을 뛰어넘어 학문적 동지로서, 또는 詩友로서 깊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주목할 인물은 여항시인 村隱 劉希慶(1545~1636)이다. 조우인과 유희경이 정확히 언제 처음 만났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613년(광해군 5)에 조

次李評事汝固韻>, <送評事李汝固還朝>, <題澤風堂>, <代評事 輟用前韻數復>, <評事懷鐵齋妓以長律一篇示余用其韻代其人獻呈> 등이 있고, 산문으로는 <澤風堂記>, <贈李評事赴朔方戎幕> 등이 있다.

54) 여기에 관해서는 윤호진의 「澤堂의 頤齋詩 비평에 대하여」(『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06.)이라는 논문이 나와 있다.

55) 이식, <梅岳山人曹君友仁汝益 文雅士也 失祿家居嶺南 聞其歿 詩以誄之 君嘗爲余作澤堂記 故篇末云>, 위의 책, 219면.

우인이 <遊枕流臺序>를 지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깊이 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유희경은 枕流臺라는 문학 공간을 거점으로 白大鵬·崔寄男 같은 여행시인들은 물론, 車天輅·任叔英 등과 같은 쟁쟁한 사대부 문인들과 어울리며 시회를 자주 열었는데, 이를 ‘枕流臺詩社’라 불렀다. 조우인 역시 이 모임의 멤버로 어울렸다.⁵⁶⁾ 조우인은 침류대에서 유희경과 교유했던 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어느 날 유희경이 나를 찾아와서 청하기를 “저의 집은 한적합니다. 城市 속 산림에서 우연히 빈 터를 마련하여 호미로 김을 매어 대를 만들고 ‘枕流’라 부르니 의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한 번 감상하신다면 林壑에서 생동감이 생길 뿐만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허락하였다. 다음날 종에게 명하여 느린 말을 채찍질하며 열른 그 문에 나아가니 유희경이 서둘러 신발을 거꾸로 신고 환영하며 나를 인도하여 한 곳에 이르렀다. …… 배회하며 산보하다가 서로 풀을 깔고 편안히 앉아서 秋露酒 몇 잔을 따라 마시자, 금세 술기운이 돌다가 취하였다. 이에 팔을 굽혀 베고 눈을 붙이며 잠이 드니 한 마리 새도 울지 않고 못 동물들도 절로 잠잠하고, 단지 바위에서 물이 팔팔 쏟아지고 범범하게 못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멀리 있는 사람은 은은하게 바람과 천둥이 서로 부딪치는 듯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쟁쟁하게 옥구슬이 서로 가볍게 부딪치는 듯하다. 노래하고 화답하는 것이 거문고와 축이 서로 조화롭게 우는 것이고, 노래 가락 낮췄다 높이는 것은 금음과 상음이 번갈아 연주되는 것이다. 귀에 떠들썩하게 들려도 번거롭지 않고 정신은 맑고 기는 더욱 상쾌하였다.⁵⁷⁾

56) 柳夢寅, <劉希慶傳>, 『於集』, 한국문집총간 63집, 441면, “今之文士若車五山天輅, 李芝峯睟光, 申玄翁欽, 金南窓玄成, 洪鹿門慶臣, 許蛟山筠, 任菴菴叔英, 曹峴南友仁, 成雙泉汝學 或登其臺而賦之 或見其詩而和之 或聞其風而贈之 總諸篇成一帙 悉以文鳴世者也”

57) 조우인, <遊枕流臺序>, 『村隱集』, 한국문집총간 55집, 39면, “一日 劉生希慶過余而請曰 ‘弊居閑寂 城市中山林 偶占隙地 鋤而爲臺 名以枕流 意亦有在 倘賜一賞 不但林壑爲生色矣’ 余聞而諾之 明日 命童奚 策款段 徑造其門而叩焉 劉輒倒屣歡迎 導余至一處……徘徊散步 相與藉草夷坐 酌秋露數盃而飲之 須臾醺然至醉 酒曲肱而枕 交睫而睡 則一鳥不鳴 羣動自息 但聞水聲之瀉于石者瀾瀾然 落于潭者淪淪然 遠者殷殷乎風露之相歷也 近者琤琤乎環珞之相戛也 如唱如和者 琴筑之互鳴歟 或抑或揚者 宮商之迭奏歟 聒耳而聽不煩 神清而氣益爽”

이 글은 조우인이 유희경의 초대를 받아 침류대를 방문하고, 그곳의 빼어난 풍광 속에서 추로주를 마시며 시와 음악을 즐겼던 정취를 생생히 보여준다. 조우인은 유희경을 단순히 스쳐 가는 인연이 아니라,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⁵⁸⁾ 그는 유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물평을 남겼다.

사람됨이 효행으로 알려졌고, 또 상례를 잘 이해하여 조정의 어진 사대부들 중에 그와 교유하며 예로 대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는 특히 시에 뛰어나 남들에게 전송되는 것이 많았다. 한 번 보면 그가 비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⁵⁹⁾

조우인은 유희경의 효심과 예법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탁월한 문학적 재능을 극찬하며 그를 ‘비상한 인물’로 대우했다. 이러한 교유는 조우인이 침류대 시사의 주축었던 이식, 芝峯 李晬光 등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우인은 유희경보다 16세나 어렸고, 유희경은 천민 신분의 여항시인이다. 그러나 조우인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시우로서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그는 유희경이 주도하는 침류대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침류대의 정취를 기리며 <枕流臺記>와 <遊枕流臺序>⁶⁰⁾ 및 <次贈劉希慶> 4수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그 네 번째 시이다.

못에 임하여 땅을 없애고 대를 만드니	臨池除地以爲臺
닭 울거나 개 짖지 않는 동부 펼쳐지네	鷄犬無喧洞府開
복사꽃이 없는데도 물에 떠서 나오니	不有桃花浮水出
호리병 속 천하에 속인이 어찌 오리오	壺天安得俗人來 ⁶¹⁾

58) 조우인, <枕流臺記>, 『村隱集』, 한국문집총간 55집, 39면, “余與劉相識最熟”

59) 조우인, <枕流臺記>, 『村隱集』, 한국문집총간 55집, 39면, “爲人以孝行聞 且曉解喪禮 朝之賢士大夫 無不與之交游 而禮貌之 尤工於詩 傳誦於人者亦多 一見可知其非庸衆人也”

60) <遊枕流臺序>는 『頤齋集』에 실려 있지 않고, 유희경의 『村隱集』에 실려 있다.

61) 조우인, <次贈劉希慶>, 위의 책, 251면.

이 시에서 조우인은 유희경이 손수 일군 침류대의 풍경이 마치 신선들이 노니는 무릉도원처럼 속세의 번잡함이 닿지 않는 고결한 경지임을 찬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우인은 침류대시사 멤버였던 蛟山 許筠(1569~1618)⁶²과 芝峯 李晬光(1563~1628)⁶³과 교유한 흔적이 보이고, 또 서인계 인물인 尹斗壽의 손자 秋峯 尹履之(1579~1668),⁶⁴ 沙溪 金長生(1548~1631),⁶⁵ 西溪 李得胤(1553~1630), 碧梧 李時發(1569~1626) 등과 교유하였다.

정리하면, 조우인은 예천과 상주를 기반으로 한 영남 남인으로서 학맥과 혼반 등에 기반하여 영남 남인들과 폭넓게 교유하면서도, 나이·당색·지역·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시문 하나로 세상의 벗들과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훗날 이식은 조우인의 <묘지명>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강개하면서도 의기는 고매하였고, 좋고 싫음이 매우 분명하면서도 선입견을 두지 않았으며, 선악을 매우 따지면서도 편당을 짓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친애하는 사람은 적고 탄핵하는 자들은 많았다.⁶⁶

조우인이 평생 교유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문학적 영혼과 고결한 성품’만을 보았던 그의 우직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편당을 짓지 않고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했다”라는 이식의 인물평은 조우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통찰이라 할 수 있다.

62) <題適菴遺稿序>에 허균이 조우인을 통해 曹伸의 시집 두 권을 얻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또 <丙午紀行>에 安州에서 배에서 조우인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63) 『頤齋集』에 <贈別副使李晬光潤卿令公>이라는 시가 있다.

64) 『頤齋集』에 <溟江船上 書尹殷山履之扇別>이라는 시가 있다.

65) 『頤齋集』에 <鐵原伯金君長生 以蓴鱸見惠 詩以謝之>라는 시가 있다.

66) 이식,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위의 책, 372면 “公資性剛介而意氣高邁 好惡太明而不設畦畛 臧否甚卡而不主偏黨 用是親愛者寡 摶拾者多”

3. 국방 대책 제시 및 대북 정권에 대한 풍자

1600년(선조 33)에 조우인은 <求言疏>를 올려 ‘聖學이 선학인 陸象山에 가깝다.’고 논하고, 선조가 지은 시⁶⁷⁾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다가 선조의 뜻에 크게 거슬린 일이 있었다.⁶⁸⁾ 이에 대해 金時讓은 “조우인은 경솔하게 감정대로 하여 말은 행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며, 선조의 학문을 경솔하게 논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역설적으로 조우인이 현실 문제에 대해 외면하기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현실 참여형 인물임을 증명한다. 또 조우인은 영창대군 살해를 풍자한 <형제애>과 시화의 단초가 된 <직분사기소견>과 <제분사승지칭벽> 등의 시를 지으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조우인은 성품이 강직하여 일에 대해 논하는 것을 좋아했고, 시에 뛰어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번번이 시로 읊조리곤 하였다.⁶⁹⁾ 그는 평소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소를 올려 강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시를 지어 잘못된 현실을 은밀히 풍자하였다. 따라서 조우인의 현실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그의 시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67) 선조가 지었다는 시는 2수인데 다음과 같다. “주석이 생긴 뒤로 변설이 번거로워, 얼마나 고금의 속유를 떠들었ند고, 그대는 보라 한 조각의 마음속을, 본래 맑고 비어 말이 필요 없다네.[箋註成來辨說煩 幾多今古俗儒喧 君看一片靈臺裏 本自澄空不待言] / “깊은 밤 갈 쓰다듬자 무지개 가운 토해내고, 장한 마음 애조 우리나라 안정시키려 하네. 연래의 사업은 한단의 길을 매우 듯하여, 가을바람에 고개 돌리니 한이 끝이 없네.[撫劍中宵氣吐虹 壯心初許殿吾東 年來事業邯鄲步 回首西風恨不窮] (高尙顔, <效顰雜記 上>, 『泰村集』, 한국문집총간 59집, 253면.)

68) 金時讓, 『紫海筆談』, 한국고전번역원, 79면, “戊戌年間 曹斯文友仁上疏 論聖學近於禪學 引是詩爲證 大忤宣廟”

69) 『光海君日記(중초본)』 권178, 14년 6월 22일 기사, “友仁 嶺南人 慷慨喜言論 性甚輕脫 且長於詩 遇事輒詠”

1) ‘腹背受敵’을 타개하기 위한 조령 관방 설치론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는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던 격동기였다. 化外之國으로 치부되던 일본은 오랜 내전을 종식한 뒤 그 여세를 몰아 패권국인 명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 결과 1592년(선조 25) 假道征明을 표방하며 조선을 침략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전쟁 발발 이후 명군이 참전하면서 7년 동안 동아시아 삼국은 그야말로 큰 혼란을 겪었다. 7년의 전쟁 결과 전쟁터였던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명 역시 막대한 병력을 파견하고 전쟁 물자를 대느라 국력이 급속도로 약해졌다. 이러한 틈을 타 만주의 누르차치가 급속하게 세력을 팽창하여 만주의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腹背受敵’의 위기에 처한 셈이다. 남쪽의 왜적이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이번에는 북쪽의 여진족이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⁷⁰⁾ 조우인은 조선이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전고에 경험하지 못한 변란을 당하고 왜구가 물러간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강하여 떨치는 형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교활한 왜구가 다시 침범할 근심이 있고, 북쪽으로는 늙은 오랑캐가 기회를 틈타 몰래 공격해 올 계책을 쌓고 있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면 싸우거나 지키는 것 모두 정해진 계책이 없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헤아려도 그 대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적에게 가거나 바다로 나아가 멀리 달아나지 않으면 반드시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⁷¹⁾

조우인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조선이 스스로 국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오히려 남쪽에는 왜적이, 북쪽에는 後金이 침략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즉 ‘복배수적’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다.

70) 문중양 외 4인, 『17세기, 대동의길』, 민음사, 2014년, p30, 참조.

71) 조우인, <代人聞慶請設關防>, 위의 책, 290면, “不幸我國遭前古所未有之變 寇退十餘年 尚無自強自振之勢 而南而攷虜 不無再舉之憂 北有老胡 方蓄竊發之謀 脫有緩急 則以戰以守 俱無成算 反覆思量 莫得其策 不至棄國與敵 浮海遠遁 則必將束手却立 以待其亡”

일부 위정자들은 외침에 대비하여 강화도에 들어가 항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화도는 도성과 가까운 데다 바다로 둘러싸여 견고하며, 땅도 비옥하여 만일 식량을 쌓아두고 병사를 모아 뜻밖의 근심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²⁾ 이에 대해 조우인은 탄환 같은 외로운 섬은 지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바다의 왜적이 근심된 지 오래고, 더욱이 하루아침에 도성과 경기의 백성들을 섬안으로 피신시켰다가는 적이 사방에 넘치고 병력은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며, 안으로 저장한 곡식이 다 떨어지고, 밖으로 조운선이 약탈당하면 새장에 갇힌 새가 되거나 수레바퀴 자국에 핀 물에 있는 붕어의 신세가 되어 아침·저녁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⁷³⁾ 훗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왕자와 대군 및 대소 신료들이 강화도에서 항전했으나, 결국 함락되어 인조의 삼전도 굴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가 항전의 땅으로 좋지 않다는 조우인의 우려가 훗날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1610년(광해군 2)에 조정에서는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赤裳山城을 수축하고 운영했는데, 이에 대해 조우인 역시 적상산성은 지세가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또 요충지가 아니어서 긴 강과 높은 고개의 험준함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일국의 신민들을 움직여 喉舌를 누르고 외부의 적을 막아 훗날 회복의 땅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⁷⁴⁾

이처럼 조우인은 기존의 방어 거점들이 지리적·전략적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를 대신할 방안으로 鳥嶺에 關防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상도는 우리나라 동남의 울타리인데 조령 한 길은 남북으로 왕래하는 요충지이니, 지금 견고하게 지켜야 할 땅에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72) 조우인, <代人聞慶請設關防>, 위의 책, 290면, “江華一島 最近都城 環海爲固 地且肥饒 若峙糧聚兵 以備不虞 則他日本根之地 無過於此”

73) 조우인, <代人聞慶請設關防>, 위의 책, 290면, “第念彈丸孤島 地力有限 而海狼之寇 爲患亦久 一朝舉都城畿甸民人 避處于其中 而敵有滔天之勢 兵無蟻子之援 則內而儲粟且盡 外而漕運被掠 囚籠之鳥 涸轍之魚 明知其莫保乎朝夕矣”

74) 조우인, <代人聞慶請設關防>, 위의 책, 290면, “第念地偏一隅 又非要衝 而無長江峻嶺之險……舉一國臣民 扼喉舌而抗憑陵 以圖後日恢復之地 則恐不在此”

고 하였다.⁷⁵⁾ 조령은 사방이 우뚝 솟아있으면서도 안은 평탄하고 밖은 가팔라서 천명의 병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만 명의 장부도 열 수 없는 천혜의 험준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험준한 곳에 관방을 설치하면 남쪽의 왜적이 침입하면 조령을 거점으로 이북지역을 방어할 수 있고, 반대로 북쪽의 후금이 침입하면 조령 이남 지역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⁶⁾

그러나 관방을 설치하는 장소는 縣邑이 건널 수 없고 성을 쌓는 부역은 짧은 시간에 완비할 수 없으며 곡식을 저장하고 병사를 주둔시켜 방어하고 지키는 도구를 갖추기란 더욱 임시변통할 수 없다.⁷⁷⁾ 그래서 조령 아래에 있는 聞慶·咸昌·龍宮·山陽 4개 고을을 통합하여 대도호부를 설치하면 관할 영역은 네 고을을 아우르게 되고 백성들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 성을 수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사시에 조령 아래의 여러 읍을 도호부에 소속시킨 뒤 전쟁과 변고에 主鎭이 여러 읍을 관할하여 끝내 흩어지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⁷⁸⁾고 주장하였다. 조우인은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조령은 아니지만, 경성 관관 시절 경성을 개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으로 통정대부에 오르기도 하였다. 훗날 1708년(숙종 34) 조령에 비로소 관방이 대대적으로 구축되었다⁷⁹⁾는 사실을 통해 조우인의 의견이 그의 사후 실제로 증빙되는 셈이다.

75) 조우인, <代人聞慶請設關防>, 위의 책, 290면, “臣竊念慶尙一道 爲國家東南藩蔽 而鳥嶺一路 是南北往來之要衝 在今日設險固守之所 誠無急於此者矣”

76) 조우인, <代人聞慶請設關防>, 위의 책, 290면, “南方有事 守此城而鳥嶺以北 可保無虞 北方有急 守此城而鳥嶺以南 可保無虞矣”

77) 조우인, <代人聞慶請設關防>, 위의 책, 290면, “然而設險之所 非縣邑之所可堪 築城之役 非朝夕之所可完 而積粟藏兵 以備防守之具 尤非臨時之所可辦”

78) 조우인, <代人聞慶請設關防>, 위의 책, 290면, “使嶺下一帶諸邑 隸於本府 然後主鎭之勢 可以綱紀列邑 而臨亂應變之際 自有統領而終無渙散之憂矣”

79) <關防 慶尙道>, 『萬機要覽』, “【聞慶】鳥嶺城 肅宗戊子 石築 南北十八里 周一萬八千五百九步 城在三處 一在嶺上 限湖嶺界 一在鷹巖北 因忠元舊城改築 謂之中城 一在草谷 有軍餉倉庫 三城皆有虹霓門以通大路 嶺城曰鳥嶺關 中城曰鳥東門 草谷城曰主屹關”

2) 寓話를 통한 대북 정권의 풍자

조우인은 <형제암>을 통해 광해 정권이 영창대군을 살해한 것을 풍자하였고, 정인홍의 권세가 조야를 압도하자 매년 ‘大姦’이라 그를 배척했으며, <大開川說>이라는 작품을 지어 대북 세력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대개천’은 도성 한복판 더러운 물이 합류하는 곳이다. 매양 여름과 가을철이 되어 장맛비가 때맞춰 내리면 더러운 토양이나 똥, 오줌 등 더러운 물건들이 개천을 뒤덮은 채 흘러내려 악취가 사람을 엄습하여 사람들은 감히 그 흐름을 보지 못한다. 수영을 좋아하는 어떤 객이 일찍이 대개천의 이름을 듣고 ‘이 수원(水源)은 대궐의 개천에서 흘러나오니 반드시 은하수와 瑤池의 하류로, 세간의 일반적인 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다. 객이 이르자 옷을 풀고 관을 벗어서 물에 뛰어들었다. 그는 머리를 풀어헤쳐 감기도 하고, 나체로 목욕을 하기도 하며, 움켜 마시기도 하고, 들이마셔 양치질하기도 하였다. 머리를 띄우고 이마를 바로 하는 것이 마치 헤엄치는 아이와 같았다.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면 성을 내고, 사람들이 타이르면 더욱 성을 내며, 사람들이 비웃으면 더욱더 성을 내었다. 더러운 국물이 줄줄 흘러 몸을 휘감고 얼굴을 뒤덮어 보는 사람들이 토하고 침을 뱉으며 똑바로 보지 못했는데, 객은 편안히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⁸⁰⁾

이 작품은 흥미로운 寓話로, 겉으로는 도성 안의 더러운 대개천에 뛰어들어 목욕하고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어떤 객’의 기이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광해군 시기 집권 세력이었던 大北 정권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기이한 일화를 넘어 대북 정권을 매우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 시기의 집권 세력인 대북 정권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80) 조우인, <大開川說>, 『(국역)頤齋先生文集』, 창녕조씨 이재공과중회, 97~98면, “大開川者 都中澗水之合流者也 每值夏秋之節 霖雨時至 則糞壤屎溲 凡污穢之物 蔽而流下 醜氣襲人 人莫敢窺其流 客有喜游水者 嘗聞大開川之名 以爲此水源 從御溝而出 必是銀潢瑤池下流 非世間尋常之水之比也 至則解衣脫冠 踊躍赴水 或散髮而沐 或裸體而浴 或挾而飲之 或吸而嗽焉 頭出頭沒 頂浮頤正 如涸兒然 人或非之 則怒焉 人或警之 則加怒焉 人或笑之 則又加怒焉 穢汁淋漓 塗體被面 觀者嘔唾 不能正視 而客則恬不爲愧”

로 전개했고, 그 여세를 몰아 광해군을 추대함으로써 권력을 잡았다. 광해군을 지지한 정인홍·이이첨 등의 대북 세력은 임해군과 인목대비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에 위협을 느껴, 1613년(광해군 5)에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등 반대 세력을 과격한 수단으로 제거하였다.⁸¹⁾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옥사를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작품에 등장하는 대개천은 온갖 오물이 흘러드는 공간으로, 조우인은 이를 당시 정치적 부패와 윤리적 타락이 만연했던 대북 정권의 현실에 빗대어 형상화하였다. 이곳에서 수영하는 어떤 객은 더러운 물임에도 뛰어들어 마시고 즐기는 어리석은 인물로, 정인홍·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 세력을 상징한다. 객의 기행을 지켜보며 토하고 침 뱉는 구경꾼들은 바로 대북 세력의 폭정을 비판하고 근심하는 올곧은 선비들과 백성들이다.

조우인은 객이 더러운 똥물이 흐르는 개천을 보고도 ‘이 수원은 대궐에서 나오니 반드시 은하수나 신선의 연못 같은 성스러운 물일 것’이라며 맹신하는 모습을 통해 대북 세력이 임금의 권위를 빌려 자행하는 온갖 추잡한 정치적 행위들을 ‘성스럽고 정의로운 것’이라 착각하고 정당화하는 지배 세력의 안이하고 맹목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또 그는 ‘객이 더러운 똥물을 머리에 얹고, 얼굴에 묻히고, 심지어 입에 넣어 양치질까지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모습’을 통해 廢母殺弟와 같은 패륜적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양심을 저버린 대북 세력의 부도덕성을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객에게 ‘그 물은 더러운 똥물이니 나오라’고 비난하거나 타이르고 비웃자, 객은 도리어 성을 내며 고집을 부린다. 이는 수많은 남인·서인 세력들이 폐모론의 부당함을 목숨 걸고 상소해도 오히려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대북 정권의 오만과 불통을 풍자한 것이다.

종합하면, 이 작품은 임금의 권위를 등에 업고 온갖 정치적 폐단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이 정의인 양 거리낌 없이 권력을 탐하는 대북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대개천에서 똥물 목욕을 하며 좋아하는 미치광이 객’의 모습을 통해 극대

81)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13, 377~378면.

화하여 풍자한 우화이다.

6. 맺음말

이제 조우인은 경상도 예천군 개포리 출신으로, 월천 조목의 문인이다. 그의 증조부 조계형은 연산군 때 문명을 떨친 문인으로, 시문학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악률에 밝아 언해와 악장에도 뛰어났다. 이러한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와 문예적 소양은 후대에 문예지향적인 가풍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가풍 위에서 조우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시재를 보였으며, 일찍부터 한글 가사에 관심을 가지고 <매호별곡>·<자도사>·<관동속별곡>·<출새곡> 등의 여러 편의 가사 작품을 남긴 가사문학의 대가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시로써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시 때문에 재앙을 당한 불우한 시인이기도 했다. 조우인의 삶, 교유 양상, 현실 인식 등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조우인은 1605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광해군 시기 대북 정권과 정인홍을 비판하는 글과 시를 지으며 계축옥사와 영창대군 사건을 풍자하는 등 강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1621년 경운궁에서 지은 <직분사기소견>과 <제분사승지청벽> 두 편의 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어 이이첨 일파의 무고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친국과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선왕을 생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는 권필과 함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詩禍를 겪은 시인으로, 권력 비판과 절의를 지킨 문인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인조반정으로 석방된 뒤 우부승지 등 요직에 올랐으나, 옥중 고문으로 얻은 병이 악화되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상주 매호로 낙향하였다.

조우인은 영남 남인으로 상주의 정경세·이준·이전 등과 폭넓게 교유했을 뿐 아니라, 서인과 여항문인까지 아우르며 당파와 신분을 초월한 교유를 이어갔

다. 특히 이식과는 23세의 나이 차이와 당색의 차이를 넘어 깊은 학문적·문학 적 우정을 나누었으며, 서로의 글을 평하고 기리며 평생 정신적 교감을 이어갔다. 또한 여항시인 유희경이 이끈 침류대시사에 참여하여 시와 술, 자연을 함께 즐기며 침류대를 이상향으로 노래하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허균·이수광·김장생 등 다양한 계층과 학파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학을 매개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조우인의 교유는 나이·지역·당파·신분을 초월해 문학과 인품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며, 이식 역시 그를 편당을 짓지 않고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했던 인물로 높이 평가하였다.

조우인은 현실 문제에 적극 참여한 문인으로, <구언소>에서 국정과 성학을 논하고 여러 시를 통해 광해군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왜적과 후금 사이의 ‘腹背受敵’의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하고, 강화도나 적상산성 대신 전략적 요충지인 조령에 관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국방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경·함창·용궁·산양 네 고을을 통합한 대도호부 설치를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행정·군사 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이러한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우화 작품인 <대개천설>에서는 더러운 개천에서 목욕하며 물을 마시는 ‘객’의 모습을 통해 광해군 정권과 대북 세력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작품 속 대개천은 정치적 부패를, 객은 정인홍·이이첨 등 대북 세력을 상징하며,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폭정을 우려하는 선비와 백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우인은 상소와 시, 우화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정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현실 참여형 문인이었으며, 그의 문학은 강한 사회의식과 풍자정신을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우인의 시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의 강직하고 현실 비판적인 삶과 정확한 국제 정세 판단에 따른 현실적인 국방 대책, 그리고 우화를 통한 신랄한 풍자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시문학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으므로, 추후에 조우인의 문학적 성과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光海君日記』
 金時讓, 『紫海筆談』, 民族文化推進會.
 『宣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燕山君日記』
 柳夢寅, 『於于集』, 韓國文集叢刊 63집, 民族文化推進會, 1991.
 李植,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집, 民族文化推進會, 1996.
 조병일, <贈吏曹判書 昌寧曹公(夢臣) 墓碣銘>, 『예천의 금석문』 1, 예천문화원, 2002.
 曹友仁, <題出塞曲後>, 『頤齋集』, 韓國文集叢刊 속12집, 한국고전번역원, 2011.
 曹挺猷, <墓碣銘>, 『湖翁遺稿』, 한국국학진흥원, 2010.
 曹好益, 『芝山集』, 韓國文集叢刊 55집, 民族文化推進會, 1990.
 권진호 외 12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문집해제』 12, 한국국학진흥원, 2009.
 권태을, 『尙州 漢文學』, 문창사, 2001.
 문중양 외 4인, 『17세기, 대동의길』, 민음사, 2014년.
 박병련, 「‘광해군 복립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해학과」, 『남명학』 11집, 남명학연구원, 2002.
 윤호진, 「澤堂의 頤齋詩 비평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이구의,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 <즉사(卽事)>시(詩)에 나타난 외물(外物)과 그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4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임형택, 「18~19세기 예술사의 성격」,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정민, 「석주 권필 연보」,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조창록, 「頤齋 曹友仁의 ‘詞’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26, 동방한문화회, 2004.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13.

| Abstract |

The Life and Social Consciousness of Ijae(頤齋) Cho U-in(曹友仁)

Hwang, Dong-kwon

Kyungpook Univ, HK Research Professor

Cho U-in (曹友仁, 1561 - 1625) was a literary scholar from Yecheon in Gyeongsang Province and a disciple of Jo Mok (Wolcheon). Gifted with exceptional poetic talent from an early age, h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both classical Chinese poetry and the Korean gasa tradi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he composed poems and prose criticizing the Daebuk (Greater Northerners) faction, which led to his persecution in a literary inquisition sihwa(詩禍). Together with Gwon Pil, he is regard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victims of literary persecution in the mid-Joseon period. He also maintained extensive literary relationships that transcended factional, regional, and social boundaries, forming particularly close intellectual and literary friendships with Yi Sik and Yu Huigyeong. In addition, he demonstrated a strong concern for national affairs by proposing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defense post at Joryeong in response to the security crisis following the Imjin War. Through his allegorical prose Daegaecheonseol (大開川說), he sharply satirized the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by the Gwanghaegun regime and the

Daebuk faction. Overall, Cho U-in was a socially engaged writer who used poetry and allegory to criticize political realities and fulfill the moral responsibilities of a Confucian intellectual. His literary works are characterized by a profound social consciousness and a powerful spirit of satire

Key Words : Cho U-in(曹友仁), Gasa literature, sihwa(詩禍), Daegaecheonseol(大開川說), Yi Sik, Yu Huigyeong